

2017년 여행 행태

- ▶ '18년 2월 20일(화) 배포
- ▶ 자료 총 4매

기 관	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
책 임	김형곤 소장/Ph.D/대학원 교수
문 의	김민화 연구원/Ph.D
이 메 일	kimmh@consumerinsight.kr
연 락 처	02) 6004-7643

<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·컨슈머인사이트 공동기획>

여행비 지출계획, 국내보다 해외 많아

- 국내 숙박여행 평균 3.1일 21만 원, 해외여행 평균 6.4일 143만 원 지출
- 여행지 만족도 국내 713점, 해외 738점

2017년 1년간 매주 500명(52주, 2만 6천명)에게 3개월 내 1박 이상의 국내·해외여행을 조사했다. 71%가 지난 3개월간 국내여행을, 28%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. 국내 여행은 평균 3.1일의 일정에 21만 원의 비용을, 해외여행은 6.4일에 143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다. 여행비 지출은 전년보다 많았고, 앞으로 1년은 더 많이 쓰게 될 것으로 예상해 여행 시장이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. 국내보다는 해외여행이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.

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여행 리서치 전문회사 컨슈머인사이트가 공동기획한 ‘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’(2015년 8월 시작)에서 2017년 1년간 소비자들이 어떻게 국내·해외여행을 했는지 요약했다. 국내·해외여행 간에 차이가 가장 큰 것은 여행비용이다. 한 번의 국내여행을 위해 1인 평균 21만 1천 원을 지출했지만, 해외여행은 6.8배에 이르는 143만 5천 원을 지출했다. 물론 여행기간이 해외가 2배 이상이기기는 하지만 이런 비용의 차이가 여행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다. 여행비 지출의향을 보면 적자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.

□ 국내여행

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찾은 국내여행지는 강원도(20.0%)였으며, 그 다음은 제주 11.1%, 부산 9.7%, 전라남도 8.2%, 경상남도 7.9%의 순이었다.

여행은 거의 전부(94.4%)가 개별여행 방식을 택했고, 평균 2.4명의 동반자와 동행했으며, 가족인 경우가 39.7%로 가장 많았다. 이들이 선택한 주 활동은 자연풍경 감상(25.6%), 휴식(21.0%)이었다.

국내여행을 위해 지난 1년보다 향후 1년 간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겠다는 응답이 38.5%, 더 적게는 15.7%로 여행비 지출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<표1> 2017년 여행 행태 조사 결과 요약

(전체, n=26,000)

구분	국내여행	해외여행
여행 경험률(지난 3개월)	71.2%	27.7%
여행지역	- 강원 20.0%	- 일본 29.1%
	- 제주 11.1%	- 중국 8.8%
	- 부산 9.7%	- 베트남 7.5%
	- 전라남도 8.2%	- 태국 6.1%
	- 경상남도 7.9%	- 필리핀 4.9%
여행 기간	3.1일	6.4일
연차 사용률(직장인)	43.9%	71.1%
여행 비용(1인)	21.1만원	143.5만원
여행방식	- 개별 94.4%	- 개별 56.4%
	- 에어텔 3.1%	- 단체 패키지 35.1%
	- 단체 패키지 2.5%	- 에어텔 8.5%
동반자수(본인 제외)	2.4명	2.1명
주 동반자	- 가족 39.7%	- 친구/연인 36.7%
	- 배우자 33.1%	- 가족 33.0%
주 활동	- 자연풍경 감상 25.6%	- 휴식 19.2%
	- 휴식 21.0%	- 자연풍경 감상 16.6%
여행비용 '더 쓸 계획' (향후 1년간)	38.5%	43.2%

□ 해외여행

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찾은 해외여행지는 일본 29.1%, 중국 8.8%, 베트남 7.5%, 태국 6.1%, 필리핀 4.9%의 순이었다. 상위권은 모두 아시아 지역이었으며, 근거리·단기간·저비용 여행이 인기를 끌었다.

과반수(56.4%)가 개별여행 방식을 택했고, 단체패키지는 35.1%에 그쳤다. 평균 2.1명의 동반자와 동행했으며, 그 관계는 친구/연인인 경우가 36.7%로 가장 많았다. 이들이 선택한 주 활동은 휴식(19.2%), 자연풍경 감상(16.6%)이었다.

지난 1년보다 향후 1년 동안 해외여행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겠다는 응답이 43.2%, 더 적게가 22.0%로 해외여행비 지출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□ 여행지 종합 만족도

국내는 3개월 내, 해외는 6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다녀온 여행지에 대해 '여행지로서 얼마나 만족했는지'와 '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얼마나 있는지'를 합산해 '종합 만족도'를 구했다. 국내 16개 광역시도(세종시는 충청남도에 포함)의 평균은 713점(1,000점 만점)이었다. 해외 대륙/국가 중 표본규모 60명 이상인 곳은 20개였으며, 이들의 평균은 738점으로 국내와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.

[그림1] 2017년 여행지 종합 만족도



Q. 전반적으로 봤을 때 '여행지 000'에 대해 여행지로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?
 Q. '여행지 000'을(를) 여행지로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?
 * 표본규모 60 이상인 국가만 제시함, ** 중동, 남미, 중남미, 아프리카대륙/지역에 포함된 국가는 불포함됨

국내여행 지역별로는 제주가 752점으로 가장 높았고, 다음은 강원 745점, 전라남도 732점, 부산 722점, 서울 717점의 순이었다. 해외는 한 번에 여러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 유럽이 822점으로 가장 높았고, 뉴질랜드 800점, 캐나다 789점, 하와이 780점, 호주 773점의 순이었다. 장거리·장기간·고비용 여행의 만족도가 높았다.

국내여행 만족도 평균인 713점은 20개의 해외여행지 중 16위인 필리핀(717점)과 17위인 대만(708점) 사이에 해당돼 낮은 편이며, 국내 만족도 1위인 제주(752점)는 가장 많은 사람이 찾은 일본(755점)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.

최근 여행의 가성비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. 일반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여행의 만족도가 더 높다. 국내여행에서 제주도가 높고 해외여행에서 유럽, 북미, 대양주가 높은 것은 같은 이치다. 단순히 만족도를 따진다면 해외여행이 높지만, 2배가 넘는 시간과 6

배가 넘는 비용을 고려하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. 소비자들은 해외에서 더 많은 비용을 쓸 계획을 세우고 있다. 국내여행의 활성화와 여행수지 적자의 축소는 시급한 과제다. 여행 가성비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.

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는 매주 여행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주례 조사를 2015년 8월 24일에 시작해, 2016년 연말 까지 71차(총 표본 수 21,300명) 실시해 왔습니다. 2017년부터는 이를 매주 500명으로 늘리고, 조사내용도 여행 행동 부문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. 조사결과와 분석 리포트는 www.consumerinsight.kr/travel 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“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 ·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의
보도자료는 인터넷(www.consumerinsight.kr/travel)에 수록되어있습니다”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**자세한 내용**을 원하시면 **아래 연락처로 문의**해 주십시오.

김민화 컨슈머인사이트 책임연구원/Ph.D
정경식 컨슈머인사이트 선임연구원/Ph.D
장영은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원/B.P.S

kimmh@consumerinsight.kr 02)6004-7643
jungks@consumerinsight.kr 02)6004-7627
jangye@consumerinsight.kr 02)6004-7631